

방역시책

# 올해 방역 행정의 이모저모

농수산부 식물방역과장 趙

奎

鎬

농수산부는 올해 식물방역 행정의 기본방향을 ▲중합방제를 정착화하여 발병요인을 극소화하고 ▲병충해 발생 상승지를 지속적으로 개선 관리하며 ▲종자소독 및 못자리 입체농약을 적극 사용하고 ▲본답초기에 침투성 살충제를 살포하는 등 시 ▲조기정밀예찰과 예찰정보 발표로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공동방제단의 활성화와 기동화에 노력하는 한편 ▲마을단위 농약현장공급의 정착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농수산부는 또 ▲농약관리제도 개선으로 농민 민원을 해소하고 ▲농민의 경각심을 제고시키기 위해 안전사용에 대한 지도 계몽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 지난해의 농정 회고

지난해는 모내기 전후하여 극심한 한발과 “세실”, “엘리스” 등 2차례의 태풍을 겪으면서도 우리 농민들은 이를 슬기롭게 이겨내어 '81년도에 이어 평년작을 넘게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되므로써 우리 농촌은 더 밝은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고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경제 성장을 높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지난해는 한발로 인하여 모를 다 내지 못하고 대파한 면적도 있으나 그런 가운데서도 풍년을 가져온 원인은 '81년도 겨울부터 꾸준히 추진

해은 농토배양 사업등 병충해 종합방제 추진과 방제기구의 연차적인 지원 공급으로 인한 방제기반 조성이 주효하였으며 이에 따른 조직적인 방제가 성공리에 이루어 졌다고 각된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82년도 병충해 방제시책중 잘된점과 미비하여 개선할 사항등을 다시 한번 간추려 정리함으로써 새해농정시책추진에 반영코자 한다.

## 미비점및 개선사항

### 가. 종합방제 추진을 위한 기반구축

- 농한기를 이용한 31천개소의 공동방제단 및 용역방제단을 정비하였고
- ☑ 방제기구 192천대와 파이프다스타 125천개를 지원공급하는 한편
  - ☑ 객토(81천헥타) 벚짚갈기(768천헥타) 규산질비료(282천톤) 시용 및 내병성 품종을(344천헥타) 적지공급하는데 주력하였으며
  - ☑ 공동방제단을 주축으로한 농협농약을 현장까지 외상공급하고
  - ☑ 농약안전사용을 위한 대농민교육(43천명)과 방제복(164천착) 및 해독제(900천정) 개량마스크(500천개)를 무상공급하였다.

### 나. 병충해 전염원 초기박멸

- ☑ 병든 벚짚의 완숙퇴비 제조시용과
- ☑ 휴만잡초소각(101천헥타) 및 월

동병해충 생존량조사(14회)로 발생정도를 사전과악하는 한편

- ☑ 증자소독 및 못자리 병충해 방제에 철저를 기했고
- ☑ 병든 묘는 본답에 절대로 이앙하지 못하도록 하여 초기방제에 대처하였다.

### 다. 예찰강화 및 적기 동시방제실시

- ☑ 조직적인 계획과 일선근무자들이 기동성있게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 ☑ 공동방제단 조직내실화로 동시공동방제를 정착화하고
- ☑ 잎도열병으로 주저앉은 필지 2,700개소에 대해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중점관리하였으며
- ☑ 적기 긴급방제령 발동에 의한 방제효과를 제고하는 한편
- ☑ 농약 안전사용 적극 지도로 농약피해를 격감시켰고
- ☑ 병충별 발생 상승지 집중관리로 병충원 확산을 방지하는등의 적극적이고 기동성 있는 시책추진은 작년도 병충해 방제에 상당한 효과를 거둔것으로 평가된다.

## 시책추진중 잘된점

앞에서도 언급하였지만 작년도에는 시책상 잘된점도 많으나 반면에 추진상 문제점이 없었던 것도 아니다. 이와같은 사항들은 계속적으로 개선 실천하여야 할것이며 시책이

◇ 올해 방역행정의 이모저모 ◇

정착될때까지 아낌없는 노력이 주어  
져야 할것이다.

- 일부 못자리의 입제농약 미시용
- 가뭄지역의 가뭄극복 인력지원에  
의한 방제 소홀
- 출수기 강우에 의한 방제소홀로  
일부지역 목도열병 피해발생
- 종자소독 미흡으로 부분적인 키  
다리병 발생
- 본답초기 부분적인 저온성 해충  
피해 발생
- 일부필지 초기방제 소홀로 문고  
병 피해담 및 잎도열병으로 주저  
앉은 필지발생
- 못자리 입제농약의 대포장 공급  
으로 농민불만 야기등은 금년에도  
개선실천 하여야할 과제들이다.

**올해 방역행정 방향**

금년에는 지난해의 잘되었던 점은  
더욱 발전시키고 미흡했던 문제점은

개선 실천하는데 중점을 두되 그 기  
본 방향은 다음과 같다.

**가. 종합방제 정착화로  
발병요인 극소화**

객토, 심경, 벗짚갈기, 구산질비료  
시용등 농토배양으로 지력증진, 품  
종비교전시포에 힘입은 적지 적품중  
보급으로 내병성 제고, 냉수지구의  
배수로 정비등 약제의존 이외의 외  
적요인을 정착화시켜 나갈 계획이  
다.

**나. 병충해 발생상습지  
지속적 개선관리**

'80년도에 처음 조사하여 연차적  
으로 개선하고 있는 병충해 발생 상  
습지는 근본적인 개선작업과 병행하  
여 방제시기에 들단위로 관리 책임  
자를 지정하여 중점방제를 하므로써  
병해충의 근원적인 확산을 방지하고

◇ 병충해 발생상습지 개선 및 개선대상지 현황

	조사 당시		개						선		'83 개선 대상지	
			'81		'82		계					
	개소수	면적	개소수	면적	개소수	면적	개소수	면적	개소수	면적	개소수	면적
계	9,955	58,294	4,087	24,206	2,397	15,028	6,484	39,234	4,132	20,889		
도 열 병	5,730	29,219	2,425	12,561	1,344	7,550	3,769	20,111	2,406	10,183		
백엽고병	4,039	27,825	1,627	11,238	1,037	7,391	2,664	18,629	1,591	9,950		
벼잎벌레	186	1,250	35	407	16	87	51	494	135	756		

※ '81~'82선규개선대상지 추가발생(661개소, 1,829헥타)

있으며 대단위 시범단지 16개소를 설치하여 상습지 병해충 방제의 파급효과를 기대토록 하였으며 정부보 증 내병성 종자의 최우선공급 및 목도열병 농약대지원, 방제시기에 관수용 방제기구 우선공급, 농토배양배수로 설치사업등에 최우선 지원을 할 계획이다.

다. 종자소독 및 못자리

입제농약 사용

새마을 영농회별로 “침종의 날”을 정하여 종자소독을 공동으로 실시하고 못자리 설치전에는 규산질비료와 입제농약을 반드시 사용토록 지도하겠으며 작년에 일부농민의 민원의

대상이 되었던 입제농약 소포장은 500g 단위로 분포장 공급하므로서 시용이 용이토록 할 계획이다. 그리고 못자리 말기에는 반드시 병충별 동시방제를 실시하여 본답초기 방제효과를 거양토록 하겠으나 못자리에서 병든 묘는 폐기매몰시키고 예비묘를 이양토록 하여 초기방제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라. 본답초기 침투성 살충제살포

작년에는 일부지역에서 벼잎벌레 및 벼 줄기굴파리가 대면적에 발생되어 초기 생육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되어 금년에는 전시교육장으로 본답 씨레질 할때 침투성 살충제를

◇ '83 수도 병충해 방제계획

		防 除 計 劃			防除比率
		計	苗 板	本 畝	
合 計		千ha 10,652	196	10,456	% 879
病	小 計	6,009	118	5,891	496
	稻 熱 病	4,109	81	4,028	339
	紋 枯 病	1,309	—	1,309	108
	白 葉 枯 病	582	28	554	48
	其 他	9	9	—	1
虫	小 計	4,643	78	4,565	383
	멸 구 類	1,743	78	1,665	144
	(벼 멸 구)	(1,083)	(78)	(1,083)	(89)
	二化螟虫·其他	2,900	—	2,900	239
	(二化螟虫)	(1,660)	—	(1,660)	(137)

◇ 올해 방역행정의 이모저모 ◇

살포토록 설치 지도하고 기계이양 육묘상자에는 이양직전에 살포토록 지도할 계획이다.

마. 조기 정밀예찰과 예찰정보 발표의 효율성 제고

병충해 공동방제단을 주축으로 이미 임명된 예찰요원을 겨울영농교육을 통하여 소정의 교육을 이수토록 하고 새해에도 예찰요원으로 위촉 임명하여 발생보고의 신속정확성을 유지하여 방제에 기동성을 제고시키는 한편 관찰포 조사와 순회예찰의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정확한 예찰 정보를 농민에게 신속히 전달하여 방제에 임하도록 하겠다.

바. 공동방제단의 활성화와 기동화에 노력

지대, 품종, 모작별로 공동방제 기준을 설정하여 부락단위로 게시토록하고 동시공동방제 정착을 위하여 공동 및 용역방제단을 중심으로 방제기반 조성을 위한 방제기구 공급, 농약안전사용을 위한 방제복 및 마스크, 해독제 등을 공급할 계획이며 목도열병 발생시는 방제시기를 적극 홍보하여 문고병과 동시방제토록 지도할 계획이다.

사. 대 면적 항공방제 100천 헥타 실시

대면적 항공방제는 금년에도 100

천 ha를 실시할 예정이다. 방제시기별로 보아 7월 하순부터 8월 상순에 편중되어 있어 “헬”機的 절대 수 부족으로 어려운 점도 있으나 지역별로 목도열병 방제 적기를 사전에 조사하고 지역간 방제일정을 중앙과 시도가 긴밀히 조정하여 시행에 착오가 없도록할 계획이다.

아. 마을단위 농약현장공급의 정착화

새마을 영농회를 중심으로 방제시기에 주문공급제를 실시하여 마을단위 현장공급토록 하고 새마을 영농회장에게 작년부터 지급하는 수수료를 계속 지급하여 능동적 참여를 유

◇ 대농민 기호농약 신청상황

병충별	구분	農藥需給		
		計	苗板	本 畝
合 計		千 $\frac{M}{L}$ 12,166	385	11,781
病	小 計	6,734	322	6,412
	稻熱病	4,930	64	4,866
	紋枯病	1,047	—	1,047
	白葉枯病	599	10	499
	苗立枯病	248	248	—
虫	小 計	5,432	63	5,369
	멸구類 (벼멸구)	2,061 (1,362)	63 (63)	1,998 (1,299)
	二化螟虫 其 他	3,371	—	3,371
	(二化螟虫)	(1,960)	—	(1,960)

도하겠다.

### 자. 농약유통구조의 점진적 개선

농협과 시판농약의 수급 조정을 도모하고 돌발 병해충 발생에 대비하여 주요 병해충 방제를 위한 원제를 비축토록 하겠으며 유통 농약의 유통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8백여 명의 단속 공무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농협의 기호농약 확보에 역점을 두어 농민의 불만을 해소해 나갈 것은 물론 수도용농약은 물론 원예용 농약과 제초제에 대하여도 농협의 자체사업을 대폭 확대 공급함으로써 기호농약 확보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방제시기에 임하여는 지역간에 신속한 전수배를 통하여 부족농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 차. 농약 관리제도 개선으로 농민 민원해소

농약에 대하여는 계속된 제도개선의 노력과 홍보에도 불구하고 약효저하, 약해발생, 포장지 접착불량등 아직도 많은 점이 농민의 불만사항이 되고 있다. 이와같은 농민의 불만요인을 하나하나 찾아내어 능동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개선이 불가능한 사항은 교육과 홍보를 통하여 농민의 이해를 높여 감으로써 농민의 불만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첫째, 농약의 올바른 사용지도를 강화해 나갈 것이다. 농약의 약효저하나 약해발생의 대부분은 그 원인이 사용법을 준수하지 않는데 그 원인이 있다 하겠으며 이와같은 문제점을 해소해 나가기 위하여는 예방위주의 적량살포, 적정농약의 선택등 올바른 농약 사용지도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금년에도 작년에 이어 영농회장등 50천명에 대한 농약사용법 교육을 실시하고, 농약 사용지침서, 슬라이드등 홍보활동을 전개할 것이며 특히 제초제사용법 및 초종별 적정제초제 선택요령에 대한 교육과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둘째, 농약피해에 대한 보상제도를 정착화하여 나갈 것이다. 소비자 보호법 실시에 따라 설치된 농약 피해보상기구의 운영을 조속히 정착화하고 약효 및 약해에 대한 제조업체의 보다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유도해 나갈 것으로서 소비자 피해사태를 사전에 방지토록 해나갈 것이다. 또한 피해 발생시는 그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고 피해농민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보상을 지도조정함으로써 농민의 부당한 피해를 적극 구제하고 제조회사의 보상이 적정선에서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갈 계획이다.

셋째, 농약판매요원에 대한 자질향상

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 농약에 대한 여러가지 불만요인은 농약관매요원의 지도미흡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농협계통조합의 경우 여러가지 제도상 문제점으로 대농민지도가 소홀한 실정이므로 금년에는 농협판매요원에 대하여 1~2주일간 농약에 대한 자질향상 교육을 실시하고 시판상 농약관리인에 대하여도 주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평가결과 불합격자에 대하여는 재교육은 물론 영업행위 규제를 통하여 농약 관리인의 자질을 높이고 농약사용 지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셋째, 농약 포장지가 잘 떨어져 사용에 불편을 초래하는 사례가 있어 금년에는 농약포장지에 사용하는 접착제의 강도를 조사 규정함으로써 포장지가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다섯째, 농약빈병 수집체계를 계속 개선해 나감으로써 빈병수집 활동을 활성화해 갈것이다.

농민의 자율적인 수집의식을 고취하고, 농약값에 빈병값을 포함하여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빈병수집용 마대공급을 통하여 빈병 수집의식을 높이고 철저한 수거를 촉구하여 빈병으로 인한 민원을 해소하여 농촌환경오염을 없애나갈 계획이다.

#### 카. 농약안전사용 대책 추진

영농에 농약 의존도가 점차 커짐

에 따라 농약에 대한 농민의 경각심이 낮아지고 있어 안전사용 지도계몽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금년에도 안전살포를 위한 방재복, 농약살포용 개량마스크, 해독제를 확대 공급하고 영농회장에 대한 안전사용 교육, 각종책자, 리후렛, TV, Radio를 통한 지도홍보를 통하여 안전사용의식을 제고해 나갈 것이다.

농작물중의 농약잔류량을 최소화하고, 신선한 농작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농약 안전사용기준을 계속 확대 설정하고, 강력한 지도와 홍보를 통하여 안전사용기준의 준수를 꾀하고 적정사용으로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농작물 생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농약사용에 따른 토양 및 수질오염에 대한 용역조사를 계속 실시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환경보전에 이바지해 나갈것이다.

특히 가장 큰 감수요인이 되고 있는 병충해방제를 완벽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농민과 행정 및 지도기관, 그리고 농약업체가 각자 맡은 분야에서 식량증산에 소임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때 가능하리라 믿는다.

금년에도 농민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업체에 무궁한 발전과 행운이 같이하기를 바란다. ㉞